

보성군 울포해수욕장센터, 23만 명 방문... 개장 이래 최대 실적

관광지 연계 효과로 이용객·수입 모두 최고치... 웰니스 관광 거점으로 부상

보성군은 울포해수욕장센터가 12월 8일 기준 누적 이용객 23만 6천여 명, 수입금 약 19억 8천만 원을 기록하며 개장 이후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실적은 웰니스 관광 수요 확대와 지역 관광지 간 연계 강화에 힘입어 보성군 관광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나타낸다.

울포해수욕장센터(이하 센터)의 대표 콘텐츠는 보성산 녹차 성분을 해수에 혼합한 '녹차 해수탕'이다. 녹차의 카테킨과 해수 미네랄이 결합해 피부 진정, 피로 해소, 혈액순환 개선 등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이어지면서 가족 단위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센터의 성장은 울포 솔밭해수욕장과 의우한 자연리 연계성에도 맞물려 있다. 사계절 이용 가능한 해변 산책로, 일출·일몰 명소, 인근 카페와 체험시설의 확장 등

으로 관광 동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방문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다원, 제암산자연휴양림 등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보성 웰니스 관광벨트'가 형성되면서 지역 식당·카페·숙박업 등으로 소비가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센터는 단순한 휴식 시설을 넘어 지역 농업·관광자원을 연결하는 복합 플랫폼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센터 내 특산물판매장을 통해 지역 농가의 농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해 안정적 판로 확보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녹차 산업·로컬푸드·관광경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 전시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해 문화예술 융합 콘텐츠도 활성화되고 있다.

녹차와 해양 자원을 결합한 센터는 웰니스 관광 수요 확대에 대응해, 2027년 준



공 예정인 울포해수욕장센터와의 상승효과를 통해 더욱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보성군은 "울포해수욕장센터를 중심으로 녹차·해양 치유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

계해 보성만의 웰니스 관광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며 "지역 농업·관광·소비가 함께 성장하는 지역경제 모델을 더욱 견고히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윤기 기자



"어린이가 건강한 장성군을 만들겠습니다"

장성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협업 성과

장성군의 어린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소기의 성과로 이어졌다.

군은 최근 보건복지부 주최 '2025년 지역사회 비만예방관리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수상을 기록한 프로그램은 장성군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함께 운영하는 '메타키즈 원정대'였다. 먼저, 시계 형태로 손목에 차는 '스마트 밴드'를 활용해 어린이의 △신체 활동 △수면 △영양 관리 등을 확인하고, 건강한 생활·식습관을 갖도록 유도한다.

인터넛 속 가상 현실인 '메타키즈'에서는 아이들이 건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밖에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건강교육, 놀이 중심 신체활동, '1박 2일 비만예방 캠프', 가정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미션'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갖춰 호평을 얻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비만예방사업을 확대 추진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장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장흥군농업기술센터는 11일 전남도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 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각각 개최된 농촌지도사업 성과평가회에서 잇달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농업 현장 지도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농촌진흥청이 실시한 '2025년도 농업인 대학 운영 성과평가'는 전국 150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및 발표 심사를 통해 진행됐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기관평가 2개 분야 '우수기관' 선정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친환경축산·미생물 분야 실적 인정

이번 평가는 교육 운영 체계, 성과, 프로그램의 독창성 등 다양한 항목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장흥군은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이라는 최고 등급을 거머쥐었다.

또한 전라남도가 실시한 '2025년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도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남도 내 21개 시·군의 지도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한 이번 심사에서 장흥군은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체계 구축 △가

축분뇨 퇴·액비 분석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등 친환경축산·미생물 분야의 실적이 두드러지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농촌지도사업과 실용기술 보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역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군 제공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24,381건 39억 3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무안군에 등록된 차량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세액을 곱해 산정한, 연세액을 기준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 고지된다.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되며, 자동차세를 선

무안군,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12월 1일 기준 등록된 24,381건 39억 원

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2월 중 취득한 차량은 내년 1월에 과세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전용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카드납부 ARS(☎ 142211),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www.giro.or.kr) 등을 이용해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부과팀(☎ 061-450-537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산 군수는 "자동차세는 전액 무안군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 재원이며, 체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후관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무안군 제공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이사장 우승희)이 이달 26일까지 '2026년 동계 대학생 멘토링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학생 멘토를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초·중학생 멘티와 대학생 멘토가 소통하며 배우고 성장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로 거듭나는 과정이다.

영암군, 1월 겨울방학 때 활동할 대학생 멘토 모집

이달 26일까지 신청... 영암 초5~중3학생들과 멘토 멘티 활동

대학생 멘토는 영암에서 중학교 이상을 졸업한 학생 20명으로 구성되고, 부모 또는 본인이 3년 이상 영암군민인 동시에 현재 영암에 살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멘토는 배정받은 초5~중3 영암 멘티 2~3명과 활동계획을 세운 뒤 학습지도, 기타 활동 등으로 40시간을 함께 보내게 된다.

겨울방학 중인 1월에 진행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신청할 학생은, 영암군과 영암군미래교육재단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영암군은 내년 1/16일 멘토 멘티 결연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체험 등 본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영암/김희선 기자

완도군, 올해 55억 투입 어류 양식업 경쟁력 강화 힘써

친환경 에너지 및 백신 공급, 친환경 사료 저장 시설 건립 등 추진

완도군에서는 193개 어가가 광어 양식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14,088톤을 생산했으며, 이는 전국 생산량 대비 36%를 차지하는 수치다.

올해는 11월 말 기준 14,000톤을 생산했다.

완도 광어는 정화 작용을 하는 맥반석으로 형성된 해저의 바닷물을 끌어올려 양식하고 양질의 사료를 공급해 탄탄한 육질과 맛과 영양이 자연산보다 우수해 '완도 명품 광어'로 불린다.

군은 철저한 품질 관리로 '명품 광어' 이미지 구축과 어류 양식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40억 원을 투입하여 히트 펌프, 인터버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73개소), 백신 공급, 각종 검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올여름에는 고수온 피해에 대응하여 폐사 어 처리 수거비·물품비를 지원했으며, 안정적인 배합사료 공급을 위해 도비·군비 등 15억 원을 투입하여 대규모의 '친환경 고효율 사료 저장 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안전한 광어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를 지속 확보하기 위해 양식장 내 유해 화학 물질 등 불법 사용 근절 및 수산 동물용 의약품 사용 지도·단속을 상시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완도 명품 광어는 타 지역에 비해 양식 상태가 좋다"면서 "어류 양식 산업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어는 비타민B12와 오메가3, DHA, 라이신 등이 풍부해 빈혈 예방,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며,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든 맛볼 수 있어 국민 횡감으로 꼽힌다.

완도/장선우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